

대학의 성적평가 방법과 개선 방향

- 성균관대 중심으로 -

김 현 철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1. 교육평가의 의미와 기능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의 개선은 강의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평가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학습상의 어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개선은 대학강의의 개선이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이 된다.

또한 평가방법은 학생들의 학습방향이나 학습동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평가방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대학입시가 고등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정보의 분석(analysis)·종합(synthesis)이나 평가(evaluation)보다는 지식의 암기에 치중하는 현상은,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이 지식의 암기를 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와 이에 따른 평가가 교수행위의 일부이며,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작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이러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평가방법은 교수 개인의 관행과 상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수 각자에 의해서 꾸준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대학의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성균관대의 학업성적 평가방법

1) 상대평가

성균관대는 1996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처음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던 '96학년도에는 교양과목과 1학년 전공과목에만 상대평가제도를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점차 확대하여 '97학년도에는 교양과목과 1, 2학년 전공과목에, '98학년도에는 교양과목과 1, 2, 3학년 전공과목에, 그리고 '99학년도에는 모든 과목의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 상대평가가 실시된 '96학년도에는 약 50%의 과목이 상대평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의 적용이 완성된 '99학년도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과목들을 제외하고 약 70%의 과목이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적이 부여되고 있다.

예외 규정을 두어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과목들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모든 과목과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들 중에서 ① 실험·실습과목, ② 외부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목들로 교육학개론을 제외한 교직과목, 사회복지실습I, II, 그리고 약학부와 의과대학의 전공과목, ③ 군사학I, 군사학II 등의 군위탁생과목들인데, 현재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목들은 전체 개설과목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평가가 처음 도입된 '96학년도에는 A, B, C, D, F의 각 학점을 취득하는 수강생들의 비중을 각각 지정하여 고정시켰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전체 수강생 중에서 5%가 꼭 F학점을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1차 개정에서는 D' 이하 학점 취득자의 비중을 통합하여 F학점의 비중이 고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2차 개정에서는 이를 C' 이하 학점 취득자의 비중을 고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1차 개정 때까지는 학점별로 취득학생의 비중에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A학점의 비중이 전체 수강생의 20% 이상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차 개정에서는 상한만을 두고 하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학업성취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A 또는 B학점을 부과했던 문제점을 제거하여 더욱 철저한 학사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성균관대의 학점별 비중은 A등급(A', A)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A', A)과 B등급(B', B)의 합이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던 '80년대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상대평가를 사용하였으나, '80년대 말에 졸업정원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절대평가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학부제가 도입되고, 나아가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단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동일 강좌가 복수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모집단위에 교양영어 강좌가 한 학기에 여러 개 개설되고 여러 명의 강사가 각각의 강좌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강좌의 선택이 수강생들의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다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평가요소의 수와 평가횟수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상황, 수업참여도, 연구과제물, 발표, 예·복습상황, 학습태도 등 여덟 가지 평가요소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1998년 3월 31일에 보고된 성균관대의 사범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2학기의 사범대학 전공과목들의 평균 평가요소수는 4.50개로 나타났고, 1999년 9월 30일에 실시한 성균관대의 교육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999학년도 1학기의 교육대학원 19개 전공, 73개 강좌의 평균 평가요소수는 4.18개, 평균 평가횟수는 4.3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가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물, 출결상황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복습상황, 학습태도 등의 평가요소는 실제로 성적 평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과제물이라는 구성요소는 활용계획에 따라서는 교육적 가치가 특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제물은 또 하나의 고사와 다름이 없는 평가요소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심화된 학습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강의를 단순한 지식의 전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시험시간의 길이와 횟수

성균관대는 학기중에 일정 주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중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는 방식을 지양하고, 강의 담당교수가 학기 중간과 학기 최종 수업시간에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전국의 많은 대학이 학기중 일정한 주간을 설정하여 학교 전체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으며, 시험의 시간은 통상 5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정도 길이

의 시험시간은 적절한 신뢰도를 가진 학점을 산출하기에는 몹시 짧은 시간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대학의 시험에 논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0분은 많아야 3, 4개 정도의 문제 밖에 풀 수 없는 시간이 된다.

시험시간이 너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2학점 2시간 강의는 최대 110분의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3학점 3시간의 강의는 최대 170분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점의 신뢰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험 문항이 많아야 하는데, 2학점 또는 3학점의 과목들은 학습한 양이 시간에 비례하여 많기 때문에 시험시간 역시 학점에 비례하여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몇 년전에 수행된 이성진 등(1991)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체연구 '대학 학업성적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험의 횟수는 시험시간의 길이, 시험문항의 수와 마찬가지로 학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학습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만족/불만족(S/U) 학점제도의 운용

현재 성균관대의 성적평가 체계에는 S/U 학점이 없으나 2000학년도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S/U의 학점 부여 방식이 적용될 과목은 인성교육 관련과목으로 사회봉사론과 수화(手話), 국제화교육 관련과목으로 실용영어 I, II, III, 그리고 정보화교육 관련과목으로 컴퓨터문서작성, 컴퓨터자료처리, 정보검색실습 등이다. 이들 과목의 이수학점과 이수시간은 모두 1학점 2시간이며, 실용영어I는 TOEIC 600점 이상, 실용영어II는 TOEIC 700점 이상, 실용영어III는 TOEIC 80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한다.

5) 열린 사이버대학

성균관대는 12개 대학과 2개 기관의 컨소시엄 형태인 열린 사이버대학(Open Cyber University : OCU)을 통하여 회원대학에서 주관하는 과목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CU 참여대학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등이며, 현재 성균관대가 회장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SDS와 중앙일보가 참여기관으로 서버운영과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열린 사이버대학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12개 회원대학의 재학생들은 상호 학점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열린 사이버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은 소속 학교에서 주관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서 주관하는 과목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각 과목의 이수구분(전공 또는 교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교생은 관련학부와 교학처가 협의하여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A이상 30%, B·B 40%, C이하 30%)가 원칙이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성적반영요소별 비율은 퀴즈성적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이다. 퀴즈시험은 출석점검 및 평소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문제수는 5지 선다형 10문항 이내로 구성된다. 중간고사는 컴퓨터를 통한 재택시험으로 실시되며, 모든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개방식 고사(open book) 방식이나 기말고사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일정장소에 수강생들이 모여 전통적인 면대면 방식(강의실에서 치러지는 시험)으로 진행된다. 기말시험의 출제는 담당교수의 재량이며 문제유형은 객관식, 단답형, 논술형이 혼용된 형태로 구성하고, 대리시험 및 교안의 무단참조 방지를 위해 출석, 퀴즈, 중간고사 등의 점수와 기말고사의 점수가 현저히 차이는 학생에게는 과락(F)을 부여하는 비교편차과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 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

성균관대는 본교와 상호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타대학 수강의 유형이 학기 단위의 타대학 과목 또는 유학인 경우에는 학부별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일반학부 20학점, 법과대학·사범대학·약학부 21학점, 의과대학 2학점)내에서 인정하며, 학기중 일부 과목의 타대학 수강인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내에서 매회 6학점까지 인정한다. 또한, 방학중 국외대학 계절학기나 특별 개설강좌 수강은 하계 방학에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1회 3학점까지 인정한다. 재학기간중 취득할 수 있는 타대학 총학점은 졸업소요 학점의 2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학부별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부별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학칙 제44조 제1항 제2호)

졸업소요 학점	해당학부(대학)	인정범위(25%)
150학점	법과대학, 사범대학, 약학부	38학점
140학점	자연과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고분자섬유공학부, 금속재료공학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	35학점
130학점	유학·동양학부, 어문학부,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생활과학부	33학점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분위 점수로 표기된 경우에는 다음 <표 2>와 같이 환산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표 2> 100분위 점수의 인정학점

100분위 점수	인정학점	100분위 점수	인정학점
95 ~ 100점	A+	70 ~ 74점	C
90 ~ 94점	A	65 ~ 69점	D+
85 ~ 89점	B+	60 ~ 64점	D
80 ~ 84점	B	59 ~ 0점	F
75 ~ 79점	C+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분위 점수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체계가 A~F 방식이면 다음 <표 3>과 같이 환산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표 3> A~F 방식의 인정학점

타대학 성적	인정학점	타대학 성적	인정학점
A+	A+	C / C	C
A / A	A	D+	D+
B+	B+	D / D	D
B / B	B	F	F
C+	C+		

타대학에서 합격, 불합격여부만 판정하여 P(S) 또는 F(U)로 인정한 과목은 본교에서도 S(만족) 또는 U(불만족)로만 인정한다. 만약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분위 점수로 표기되지 않고, 성적체계도 위와 상이할 경우의 인정기준은 학점교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999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6명으로 오클라호마대학에서 4명, 와세다대학에서 2명의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였다.

3. 대학의 성적 평가방법의 개선방향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성적평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수년에 걸쳐서 정비하고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적평가 방법들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성적평가 방법의 개선 방향은 성균관대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대안적 평가방법의 필요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교과서나 참고서를 자유롭게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개방식 고사(open book tests)나, 학생이 문제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참고자료를 이용하면서 치르는 가정고사(take-home tests) 등의 대안적인 평가방법도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험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답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묻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고차적 지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참고자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되기 때문에 확실적인 답안이나 남의 생각을 복사한 답안이 아닌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안을 제출하도록 유도된다.

또한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하는 시험이나 과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실생활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협동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동 해결 형식의 시험이나 과제는 학생들의 협동력, 책임의식의 신장에 적지 않은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2) 형성평가의 필요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속에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분류된다.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수업 전략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총괄평가는 교육목표의 성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형성평가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교육활동의 부분적인 수정이나 개선의 필요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교육활동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들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이다. 이는 교수 및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학습 곤란의 진단과 교정, 학습 행동의 강화, 교사의 학습 지도 방법과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능을 갖는다. 형성평가의 특징은 우선, 평가 도구는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고 개선해야 할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한 개선점에 강조를 두고 있으므로 절대기준 평가 이론에 기초를 두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점수를 매기거나 학생의 능력을 판정하려는 평가가 아니므로 결과를 학생의 성적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평가는 학습의 진행 과정에서 행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소단원 또는 주제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성평가는 초·중등교육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다.

총괄평가는 형성평가를 실시해서 수업 내용과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이다. 즉, 총괄평가의 특징은 학생을 판정하여 등급을 정하고 분류하는 데 목적을 두는 평가라는 것이다. 문항은 보통 30~70%의 난이도를 갖고, 시험의 평균 난이도가 50% 정도가 되도록 작성하며,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의 평가이므로 보통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는 모두 학생들의 최종적 성적 판정의 주요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총괄평가이며, 우리의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형성평가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즉, 우리의 대학교육 평가체제는 학생들의 최종적인 성적 판정을 위한 평가만이 있을 뿐이며,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데 기여하는 평가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성평가의 도입은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3) 객관식 문제의 유용성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주관식 문항이 많이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논술형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 그런데 논술형 문항의 가장 큰 단점은 학생들의 응답시간이 길기 때문에 문항수에 큰 제약을 받게 되어 문항표집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주관식 평가에 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은 주관식 평가를 실시하여야 고등 정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과 주관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학습습관과 태도가 형성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답형이나 완결형의 주관식 문제는 선다형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정신능력을 평가하며, 이해력이나 분석력의 평가에는 객관식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주관식 평가와 객관식 평가간에 학생들의 학습 시간, 학습내용의 조직 및 학습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객관식 시험은 추측요인이 작용하며 출제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항표집의 대표성 면에서 주관식 시험과 대비되는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 특히 수강생수가 많은 저학년의 일반 교양과목이나 개론과목 등에 객관식 시험이 사용된다면, 채점시간을 줄이고, 채점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절대평가의 성적 판정기준 설정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평가의 원리상 각각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대평가체제에서 평점은 학생들의 성적상의 서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학생이 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평점의 판정기준 설정에 교수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평점 부여의 객관적인 기준이 확정되어 일관성있게 평점이 부여된다면, 학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가 주관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평점을 부여할 때 절대평가의 장점은 사라지게 된다. 절대평가는 교수 개인이 자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임의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기준이나 준거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 평가방식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5) 발달적 교육관과 교육평가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는 평가관의 문제는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교육관은 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크게 구분하면 선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으로 분류된다.

선발적 교육관은 교육목표나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떤 교육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전체 학생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육관이다.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은 전체 학급의 상위집단뿐이며, 일부 하위집단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제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교육관이다. 따라서 선발적 교육관하에서의 평가 활동은 주로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교육목표에 도달한 소수의 우수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가지며, 학업성취도의 개인차 변별이 주요 관심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관하에서는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소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전까지 선발적 교육관의 입장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반면에 발달적 교육관은 각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만 제시될 수 있다면 어느 학생이나 의도하는 바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관이다. 이러한 교육관하에서의 교육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교육관에서는 학생이 의도하는 바의 수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생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수업방법이나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발달적 교육관하에서의 교육평가는 학생간의 개인차 변별을 위한 평가보다는 주어진 수업목표 달성도의 평가에 관심이 집중되며, 따라서 선발적 교육관하의 평가와는 달리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사용하게 된다.

오늘날 대학의 평가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하

여 상대평가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피교육자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서열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를 완수하였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대학이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학업성취를 조장하고 고취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피교육자의 성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6) 교육평가의 내용

Bloom(1956)과 그의 동료들은 교육목표를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나누고, 특별히 지적 영역을 위계적으로 여섯 가지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최하위의 능력부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및 평가의 여섯 가지로, 이들은 각각 앞서의 능력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적 영역에 대한 김인숙(1983)의 학위논문 '대학의 성적평가제도에 관한 일연구'에 의하면 70%의 문항이 이들 여섯 단계의 지적 영역 중에서 앞의 두 단계인 지식과 이해에 관한 문항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조장하고, 고차적인 지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를 묻는 문항보다는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를 요하는 문항의 출제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성적표시법

성적평점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대학은 예외없이 A, B, C, D, F의 영자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이를 세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의 성적표시법을 사용한다.

A⁺, A, B⁺, B, C⁺, C, D⁺, D, F

그러나 대학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형태의 성적표시

단계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등은 A⁺, A⁰, A, B⁺, B⁰, B, C⁺, C⁰, C, D⁺, D⁰, D, F의 세분화된 단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남대 등은 A⁺, A⁰, B⁺, B⁰, C⁺, C⁰, D⁺, D⁰, F의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마다 다양한 성적표시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간 학점교류제나 외국과의 교류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학점의 타당도(validity)는 학점이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측정하는 정도이다. 학점은 수업의 목표에 비추어 성취된 성과의 표시이므로 수업목표와 다른 내용이 측정되거나 수업내용 중의 일부분만이 측정되면 학점의 타당도가 낮아진다. 학점의 신뢰도(reliability)란 다른 독립된 평가에 의해서도 비슷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즉, 평가의 과정을 되풀이하여도 유사한 학점이 산출될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문항수, 적절한 문항난이도, 높은 문항변별도, 좁은 범위의 시험내용, 시험생 집단의 이질성, 충분한 검사시간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대학의 시험문제는 교육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논술형 문제의 출제, 적은 문항수, 짧은 시험시간, 넓은 시험범위 등으로 인하여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교수개인과 대학의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김현철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육평가와 교육통계이다.